



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, 데이터·AI 기반의 행정혁신을 위한 실무 공직자 간담회 개최

-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6월 17일(수)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근 카페에서 공공데이터와 AI 정책을 담당하는 실무 공직자들과 격의없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.
 - 이날 간담회는 평소 데이터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개선, AI를 통한 행정혁신에 관심이 많은 한 후보자가 실무자들로부터 직접 생생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.
- 한 후보자는 어떻게 하면 정부가 가진 공공데이터를 최대한 잘 모으고 활용하여 정부 내부의 업무를 혁신하고, 나아가 국민 여러분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,
 - 현장에서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며 당면 과제들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을 실무자분들이 문제점과 대안 등 의견을 자유롭게 말해달라고 언급했다.
- 참석자들은 각자가 맡고 있는 업무의 현황과 실무를 담당하며 체감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자유롭게 발언했다.
 - 한 참석자는 고품질의 정보는 공직자 개개인이 보유하고 있지만 정보 공유와 공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책임과 부담을 우려하는 사례가 많으면서, 적극적인 포상이나 인센티브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.

- 또 다른 참석자는 많은 공직자가 AI 바이브코딩 등을 활용하여 반복적이고 비효율적인 업무를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사례들이 많으면서, AI 챔피언 해커톤 등을 통해 확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.
 -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업무망에서는 AI 개발에 필요한 자원 접근이 외부망에 비해 열악하다는 아쉬움을 표하기도 하였다.
- 한 후보자는 실무자들의 의견을 주의 깊게 청취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현황 및 현장애로 등을 반문하면서 논의의 집중도를 높여갔다.
- 한 후보자는 공직자 개개인이 AI를 활용하여 업무를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모범사례들은 적극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, 현재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AI챔피언 해커톤 등을 잘 챙겨달라고 당부하였다.
 - 또한, 민간이 원하는 AI·고가치 공공데이터 100개 공개를 계획하고 있으며 지난해 10개 데이터*가 공개되어 민간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, 그 성과를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.
 - * 교통카드 이용내역, 중앙행정기관 법령해석,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등
 - 아울러, 한 후보자는 앞으로 총리가 된다면 새롭게 개편된 데이터 거버넌스*를 통해 관련 진행현황을 논의하고 적극 확대·개선해 나가자고 하였다.
 - * 데이터 관계장관회의(국무총리 주재) -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(행안부),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(과기부), 국가데이터위원회(데이터처)

배 포	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	언론팀장	김희순	(02-3145-6252)
		담당자	최용정	(044-200-2709)